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'16년 2월 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2.1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장 김상태(044-203-5720), 서기관 이응대(5721)

범부처 합동 이란 진출 성과사업 점검회의 개최 (2.1)

- 한-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-

□ 정부는 2.1(월) 14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해수부, 복지부, 미래부,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**이란 시장 진출 성과사업 점검회의를 개최**하였다.

○ 이번 점검회의는 2.29(월) 이란 현지에서 개최되는 **한-이란 경제공동위를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**하기 위해 부처별 성과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□ 경제공동위 개최를 위해 **범부처 합동으로** 산업·무역·중소기업, 에너지·자원, 건설·환경, 해운·항만, 보건·의료, 금융·재정·관세, 문화·ICT·과학기술·전자정부 등 **7개 분과를 구성**할 것을 이란측과 협의 중이다.

○ 현재 전자무역시스템 구축, 중소기업 협력, 금융지원약정, 담수·발전사업 협력 등 **총 21개 MOU(협정, 계약 포함)를 이란측과 협의중**에 있다.

○ 특히, 정부는 이번 경제 공동위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**문화 등 소프트 파워(Soft Power) 확산을 위한 기회**로 활용할 예정이다.

* 정보과학이나 문화·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(하드 파워에 대응 개념)

□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로 인하여 **'16년 5.8%, '17년 6.7% 성장**하여, 중동·북아프리카 지역(MENA)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. (세계은행, '16.1)

○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와 해제된 동결자산(총 1천억불 규모, 이중 290억불 규모는 즉시해제 가능)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사회인프라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자동차·석유화학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및 기자재와 화장품, 가전제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.

* 빠른 내수 회복으로 이란 수입 규모도 15.5% 증가될 것으로 전망

□ 정부는 올해 이란수출은 **'12년 수준인 63억불까지 달성 노력**하고, **3년 내에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를 추진**한다.

○ 이번 경제공동위시 양국은 **무역규모확대를 위한 목표치를 합의의사록에 설정**하고, 향후 이행 상황을 상호 점검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는 저유가와 그간 제재로 인하여 이란 발주기관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,

○ 대형 플랜트 수주를 위해, 수출입은행은 이란중앙은행과 기본금융약정을 체결(16년 上)하여 50억 유로를 공급하고, 무역보험공사는 이란 재무부와 기본금융약정을 체결(2.29)하여 20억불 규모 무역보험을 우선 공급한다.

○ 이와는 별개로 소비재, 기자재 등 단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은 전대 라인을 개설하여 전대금융(총 2억불 규모)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과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□ 우 차관은 "**한-이란 경제공동위를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,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한다**"고 강조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상태 과장(☎ 044-203-5720) 또는 이응대 서기관(☎ 044-203-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